

# [ 한국 경제의 현재와 미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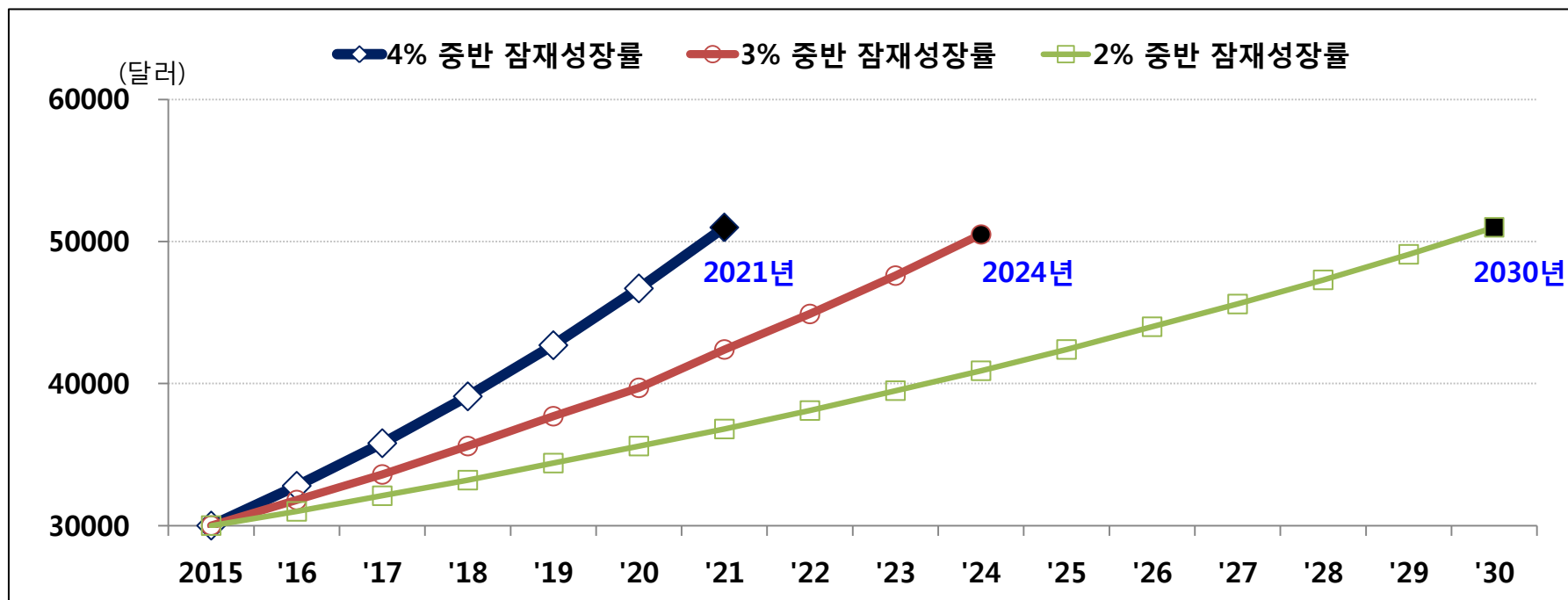
# **I. 문제 제기**

# 1. 10년 후 우리 경제의 Vision

## - 일인당 국민소득(GNI) 5만 달러의 의미 : 선진국 중의 선진국

- 2% 중반 성장시 2030년(15년후), 3% 중반 성장시 2024년(9년후) 달성.  
그러나 4% 중반 성장시 2021년(6년후) 달성

### < 잠재성장률 시나리오별 일인당 GNI 전망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 1. 10년 후 우리 경제의 Vision

〈 OECD 선진국의 일인당 GNI 3만 달러에서 5만 달러 달성기간 〉

	진입연도			달성기간(년)		
	3만 달러	4만 달러	5만 달러	3만→4만	4만→5만	3만→5만
네덜란드	2003	2004	2007	1	3	4
호주	2004	2007	2010	3	3	6
캐나다	2004	2007	2011	3	4	7
스웨덴	1999	2004	2007	5	3	8
노르웨이	1995	2002	2004	7	2	9
덴마크	1995	2003	2006	8	3	11
룩셈부르크	1991	1995	2003	4	8	12
오스트리아	1995	2006	2008	11	2	13
미국	1997	2004	2011	7	7	14
스위스	1987	1992	2003	5	11	16
10개국 평균	-	-	-	5.4	4.6	10.0 <sub>3</sub>

## 2. 두 가지 함정

### 1. Poverty Trap

- 솔로 외생적 성장론
- 유형의 물적 자본 결핍

자본, 노동, 기술의 공급 부족으로 국내의 생산수준이 너무 낮아 국내저축으로 자본의 감가상각을 보전하지 못하는 경제.

외부 지원이 없으면 이러한 경제는 계속해서 더 가난해 지거나 아니면 소위 빈곤속의 균형이라는 가난 속에서 살게 됨

### 2. Middle Income Trap

- 로머 내생적 성장론(혁신과 모방)
- 무형 자본 결핍(R&D 스톡, 인적 자본, 사회 자본 등)

개발 도상국이 경제발전 초기단계에서는 순조로운 성장세를 보이다가, 중진국 수준에 이르러서는 성장이 장기간 둔화되어 정체되는 현상(2006년 IM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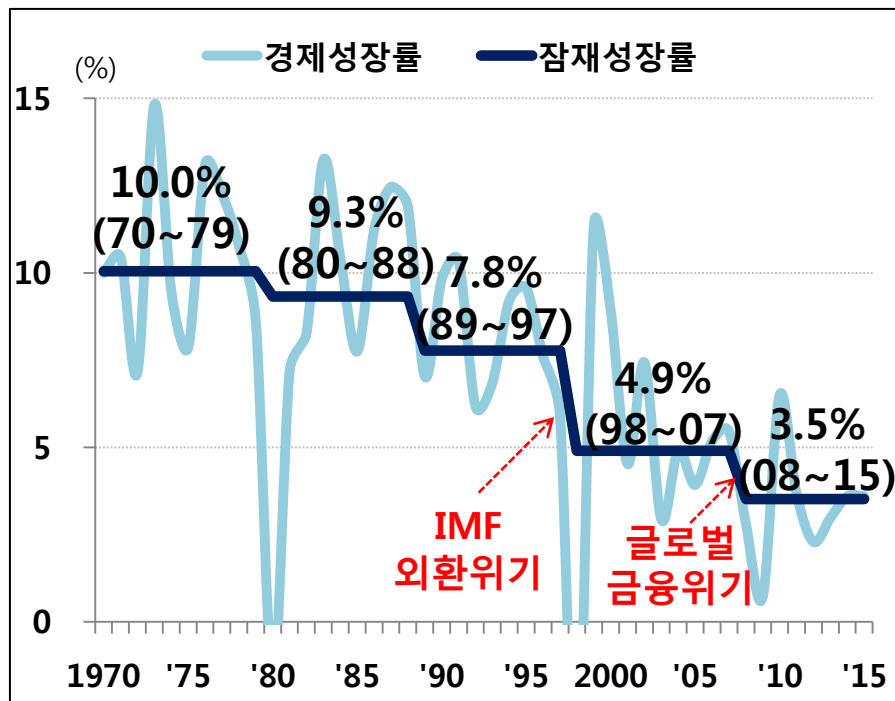
중진국 함정에 빠지게 되면 고속 성장의 폐해들이 집중적으로 폭발해 산업 구조의 선진화, 도시화, 빈부격차 가속화 등 각종 사회 모순 발생(중남미 국가들)

### 3. 중진국 함정의 징후

#### – 잠재성장률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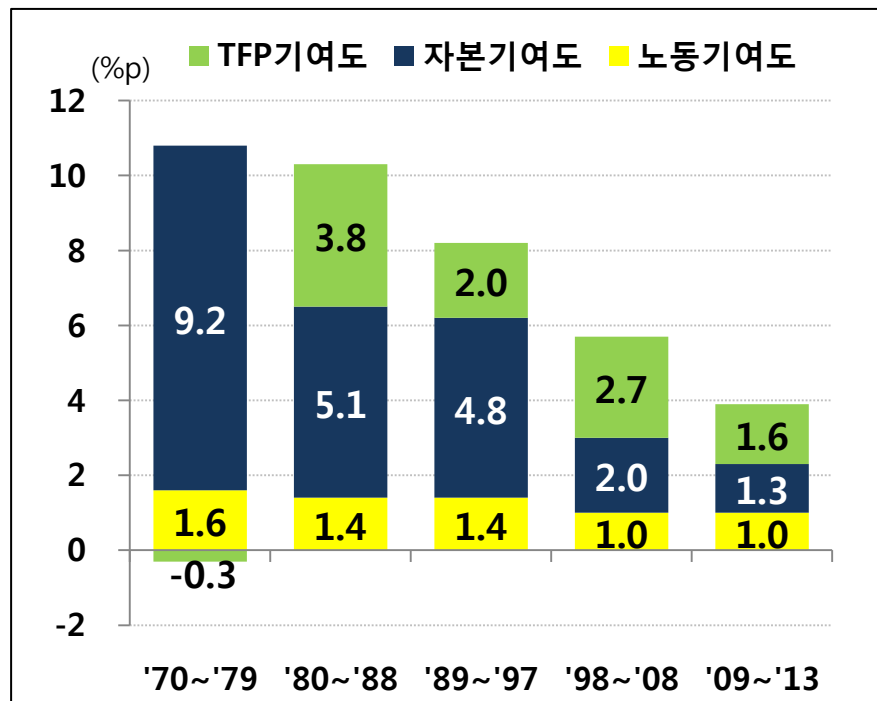
- 대외 충격시 잠재성장률 급락 이후 회복하지 못함(70년대 10% → 최근 3% 중반)
- 자본 및 총요소생산성(TFP)의 성장에 대한 기여도 하락

〈 한국 잠재성장률 추이〉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 경제성장률에 대한 생산요소별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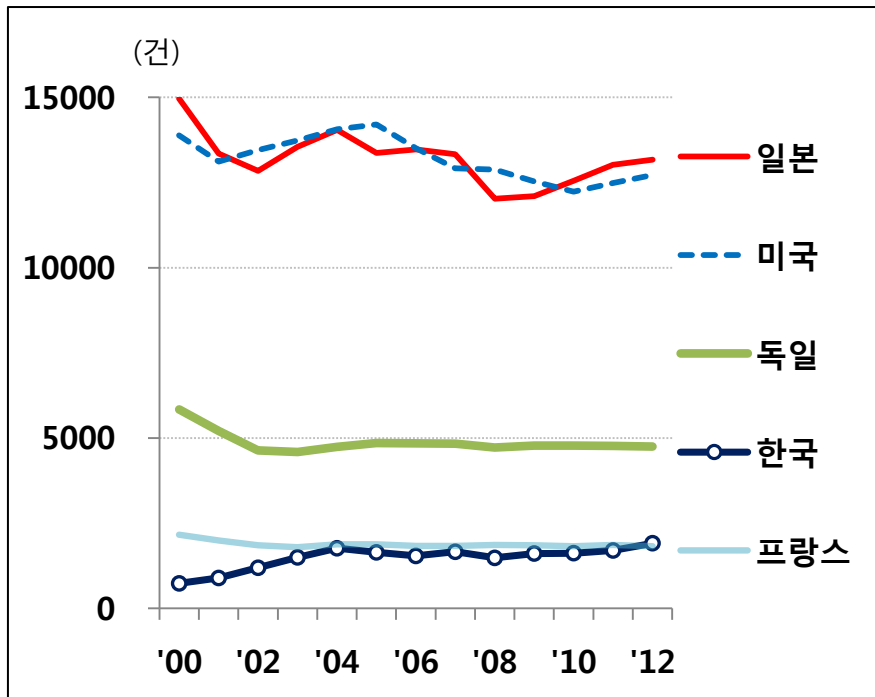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 **II. The Middle Income Trap**

# 1. R&D 스톡(catching-up strate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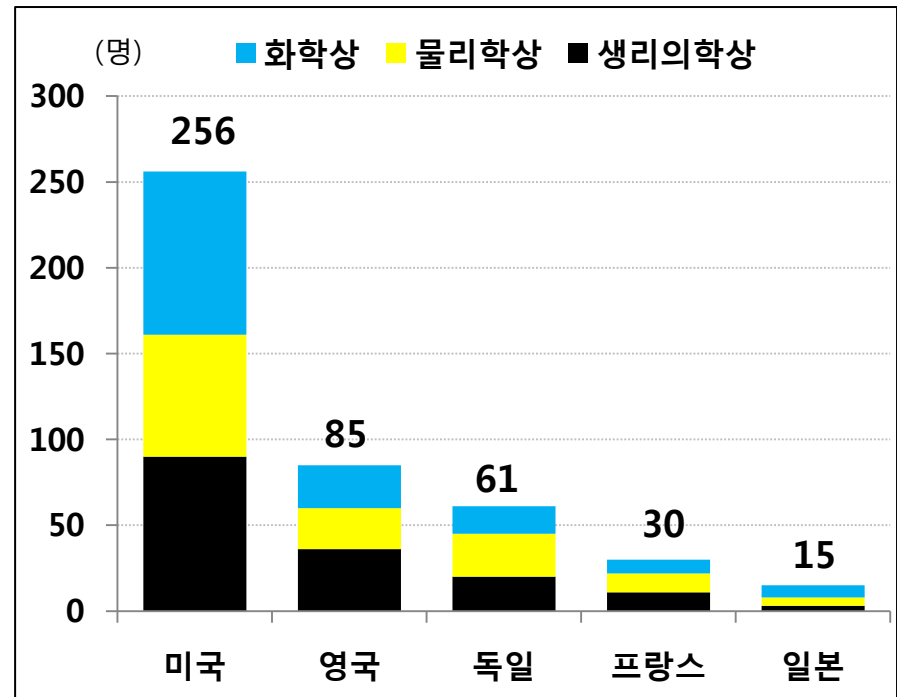
- “따라잡기(catch-up)” 이후 “기술 프론티어” 도약에 어려움
  - 응용: 2012년 삼극특허 상위5개국 일본(13,168건), 미국(12,722건), 독일(4,749건), 한국(1,913건), 프랑스(1,827건)
  - 기초 : 노벨과학상 수상자 배출 “제로”

〈 삼극특허 건수 상위5개국 비교 〉



자료 : OECD(Main Science & Technology Indicators).

〈 노벨과학상 국적별 분포(1901~2014) 〉



자료 : 노벨상홈페이지(nobelprize.org),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주 : 인문사회분야(문학상, 경제학상, 평화상) 제외.



# 1. R&D 스톡 : 빛의 속도로 변화하는 산업 지형

- 기업 생태계 : evolution에서 revolution으로
- 지식 수명 주기 : 농업혁명 20,000년, 산업혁명 200년, 지식혁명 2년
- 제조업 : 가장 어려운 산업

과학 기술의 발달 → 기술 융복합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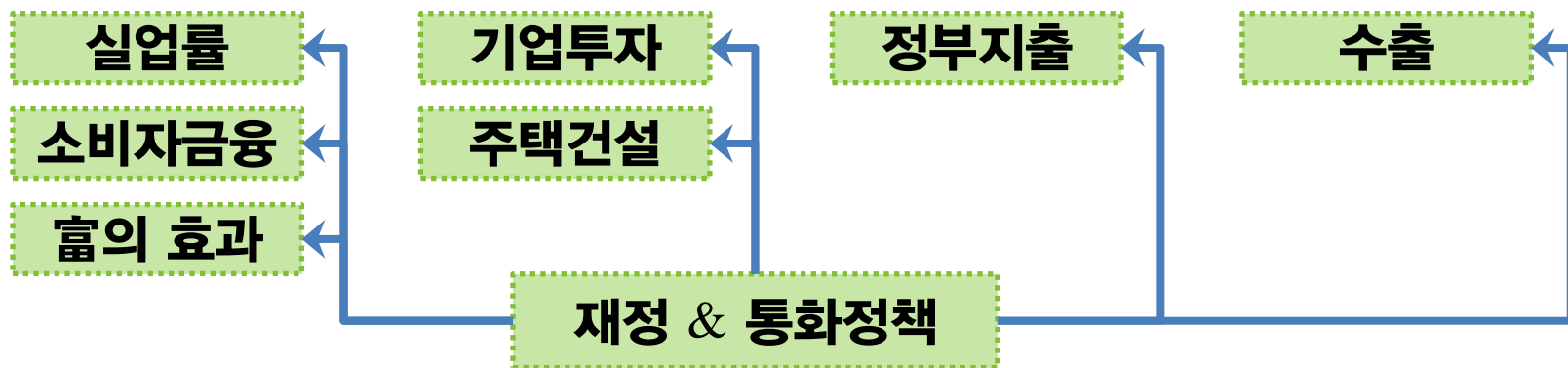
공급 능력의 팽창 → 수요자 주도 시장으로 변화



## 2. 내수 기반 취약

[한국]

$$\text{GDP} = \text{소비 (51\%)} + \text{투자 (30\%)} + \text{정부 (15\%)} + (\text{수출-수입 (54\%-49\%)})$$



〈 주요국 GDP 대비 비중(2013년) 〉

구분	소비	투자	정부	수출	수입
중국	36%	48%	14%	25%	23%
독일	56%	20%	19%	46%	40%
일본	61%	22%	21%	16%	19%
미국	68%	19%	15%	13%	17%

자료 : OECD, CE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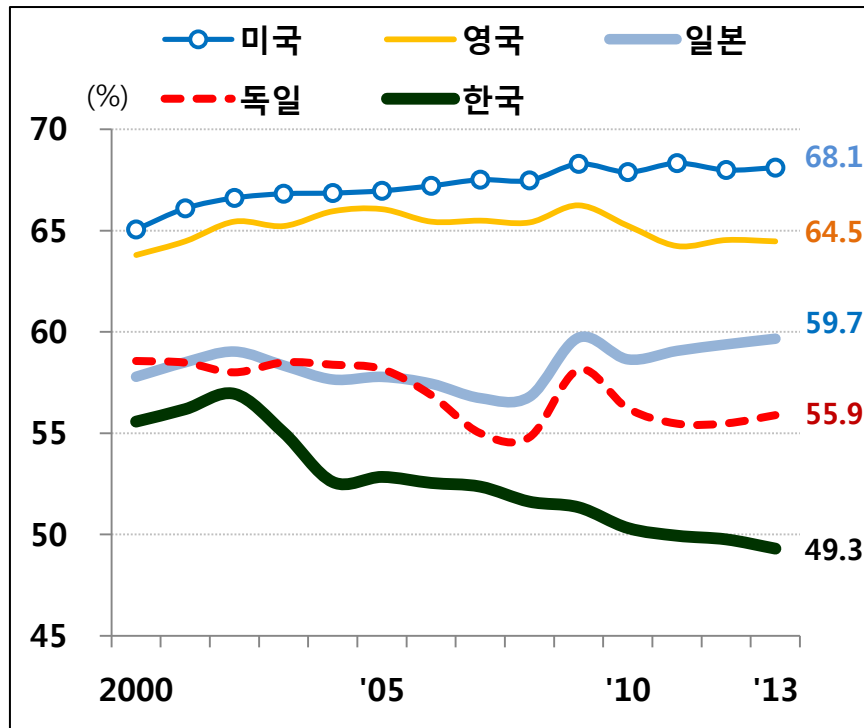
## 2. 내수 기반 취약

### - 내수 부진 심화

- 주요 선진국 대비 현저하게 낮은 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
- 소득 감소, 가처분소득 감소, 평균소비성향 하락으로 인한 소비 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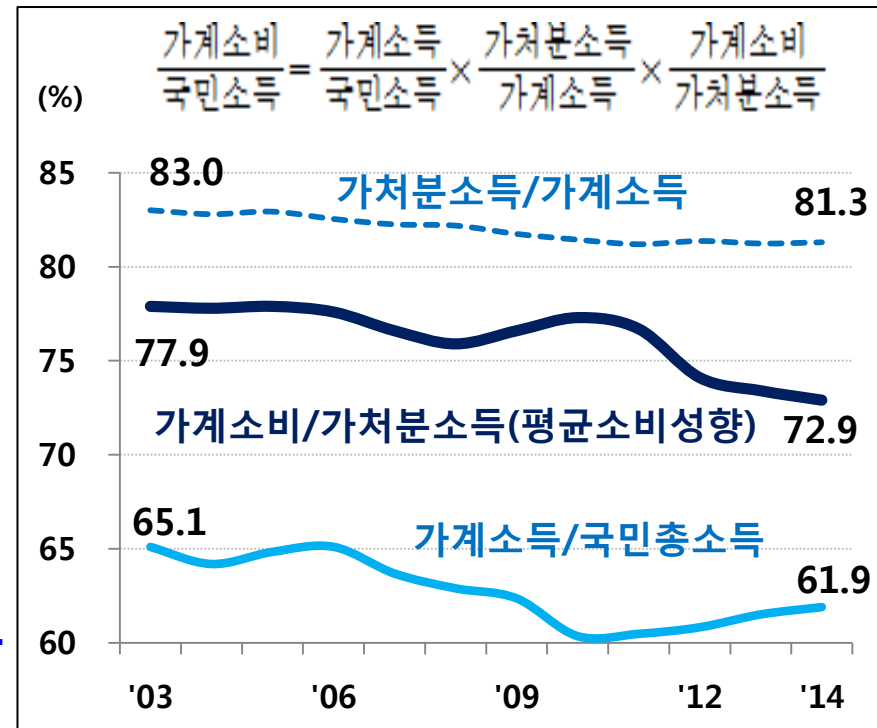
※ 한국의 Corporate Governance와 기업/가계 소득 배분

### 〈 주요국 GDP대비 민간소비 비중 추이 〉



자료 : OECD.

### 〈 국내 소비 부진의 요인별 분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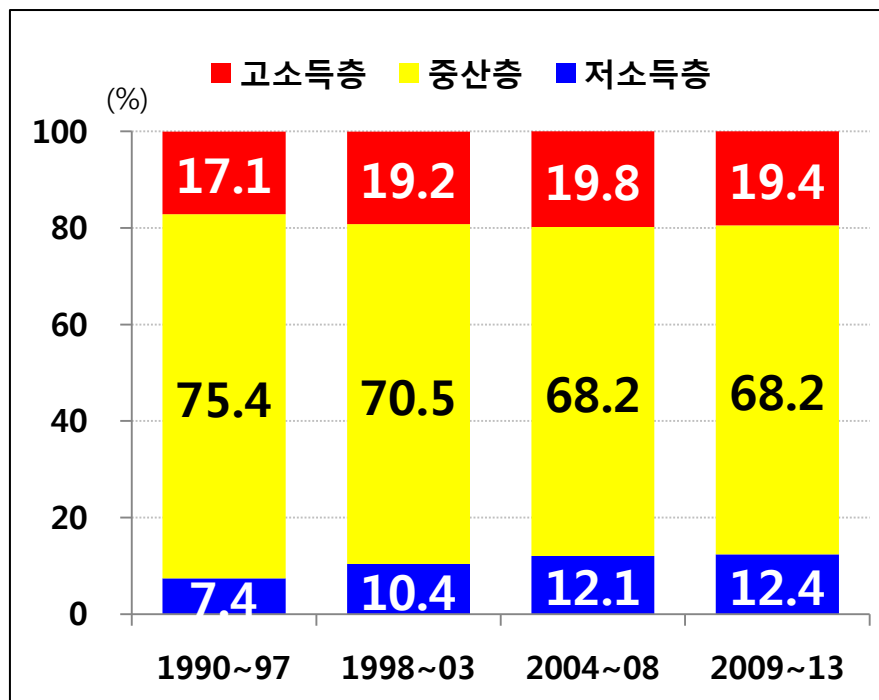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 2. 내수 기반 취약

### - 소득 분배 악화로 인한 내수 기반 약화

- 소득계층별 기준 중산층 비중 감소
- 계층귀속의식의 악화로 '나는 중산층이다'라고 생각하는 체감 중산층 비중 하락

〈 소득계층별 비중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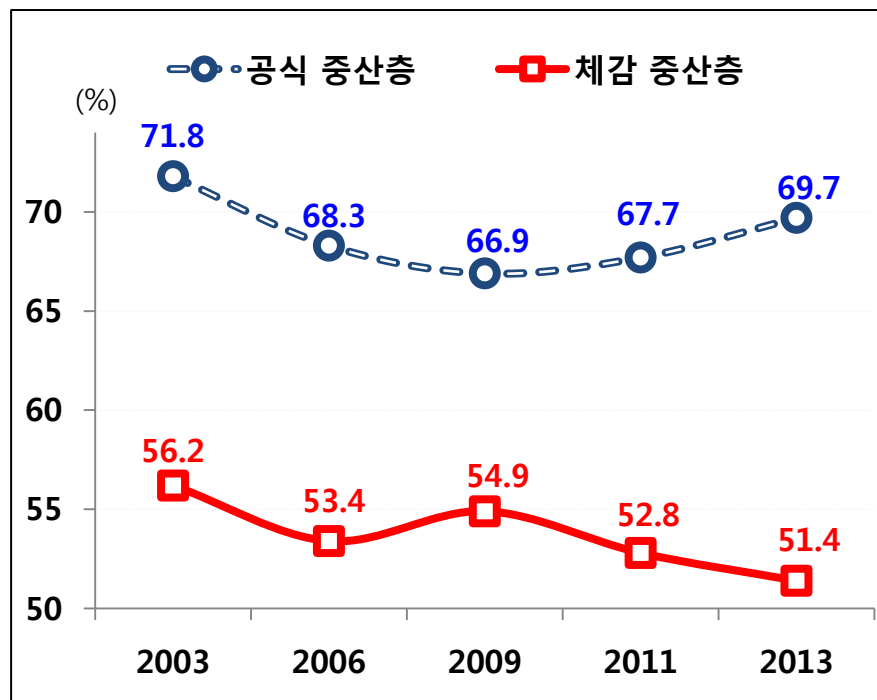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주 : 1) 2인 이상 도시가구 기준.

2) 중산층은 중위소득 50% 이상 150% 미만.

〈 공식중산층과 체감중산층 비중 추이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주 : 공식 중산층은 2인 이상 도시가구 기준.

### **III. 일본을 닮아가는 한국 경제**

# 1. 위대한 세대(The Great Generation)의 퇴장 : 한국

## - 인구 오너스(Demographic Onus) vs 인구 보너스(Bon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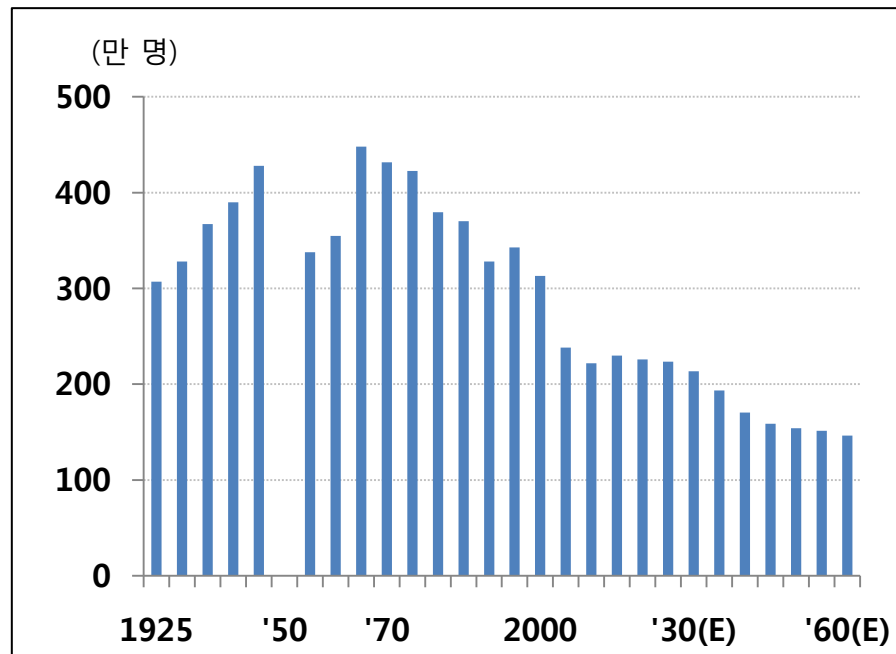
인구 오너스 : 생산연령 인구 비중 감소, 성장 정체 또는 후퇴

• The Great Generation과 뒤이은 Baby Boomer의 퇴장 및 고령화 진행

• 뒤이은 베이비부머의 은퇴 및 고령화 진행

시기별 경제성장률: 70년대 10.5%, 80년대 8.8%, 90년대 7.1%, 00년대 4.7%

### < 국내 0~4세 인구 추이 및 전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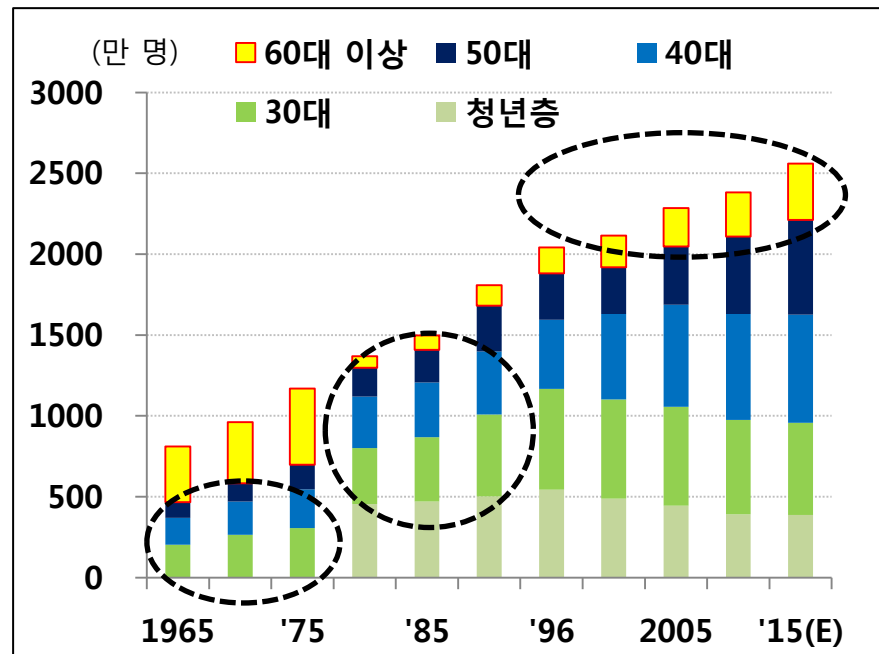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주: 1) 1950년은 인구총조사 미실시.

2) 2015년 이후는 통계청의 인구추계.

### < 국내 연령별 인구 구성비 추이 및 전망 >



자료 :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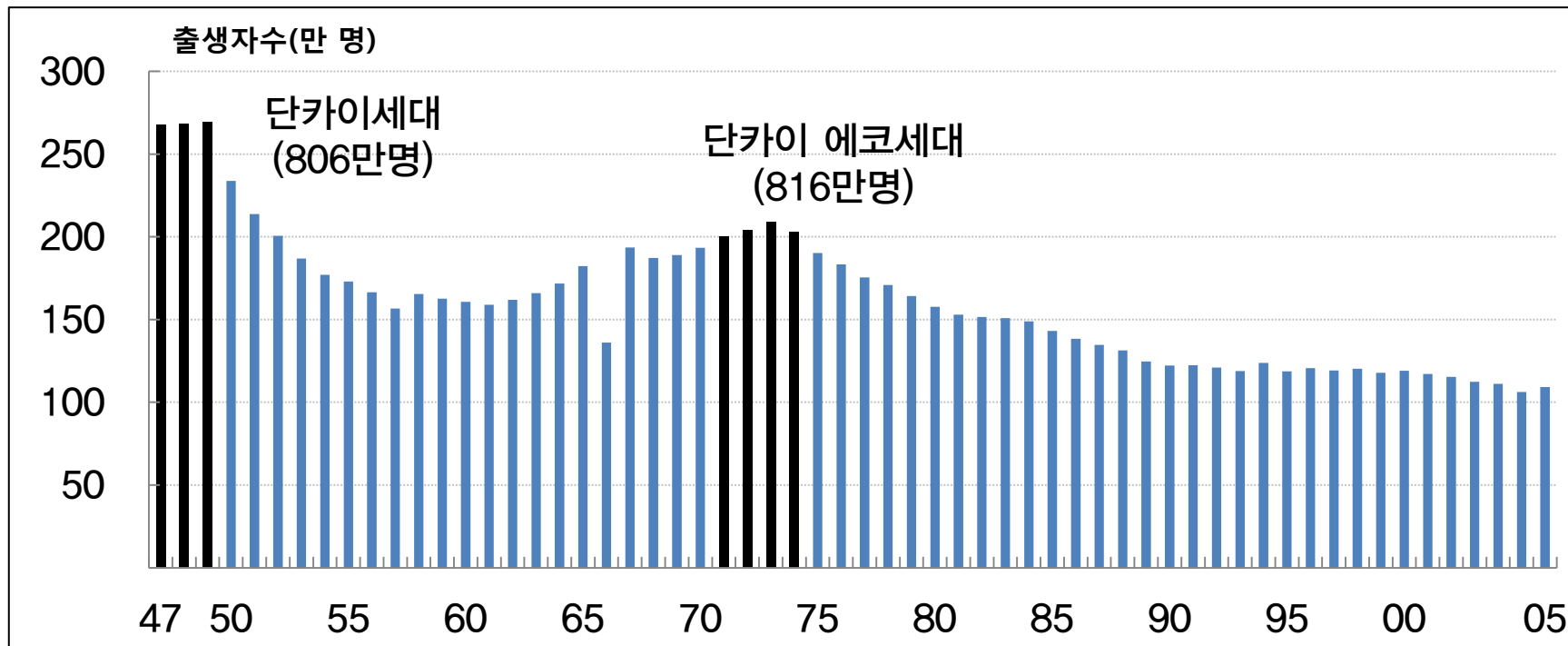
주: 1) 1965~75년도의 '60대이상'에는 청년층과 60대 이상이 포함 (해당기간의 청년층과 60대 이상의 구분된 통계 부재).

2) 원으로 표시된 부분은 1930~54년 출생자의 시기별 분포. 13

# 1. 위대한 세대의 퇴장 : 일본의 사례

- 단카이세대(團塊世代) : 전후 3년간 태어난 인구(1947~1949)
  - The 1950~1960년대 : 일자리를 찾기 위한 탈농촌 도시화
  - 1970년대 : 일본열도개조론(균형발전정책)
  - 1980년대 : 글로벌 임밸런스, 엔고, 부동산불패론(콜럼비아레코드, 록펠러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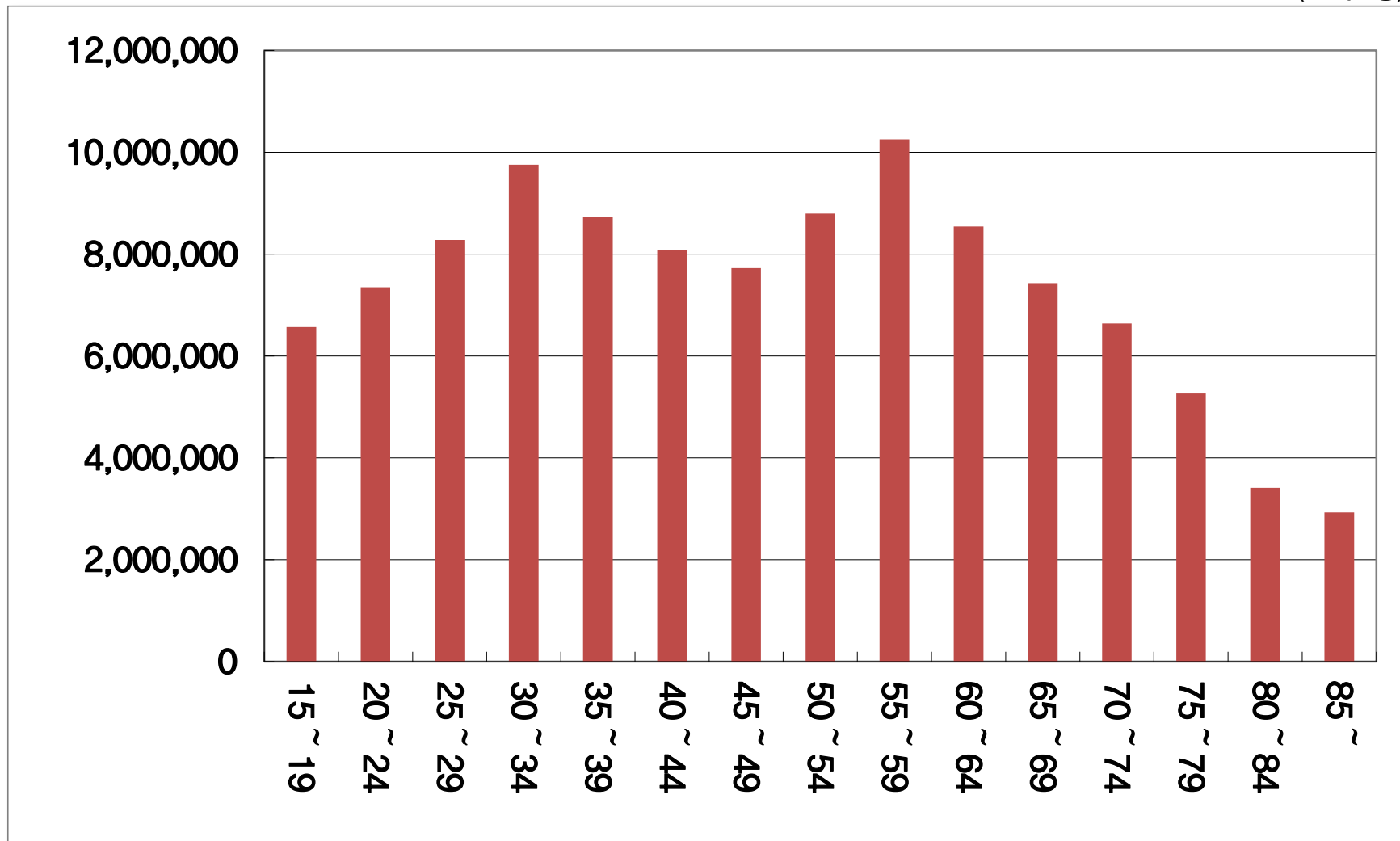
## 〈 일본의 연도별 출생아 수 〉



# 1. 위대한 세대의 퇴장 : 일본의 사례

## 〈 2005년 일본의 연령별 인구 분포(56~58세 단카이세대) 〉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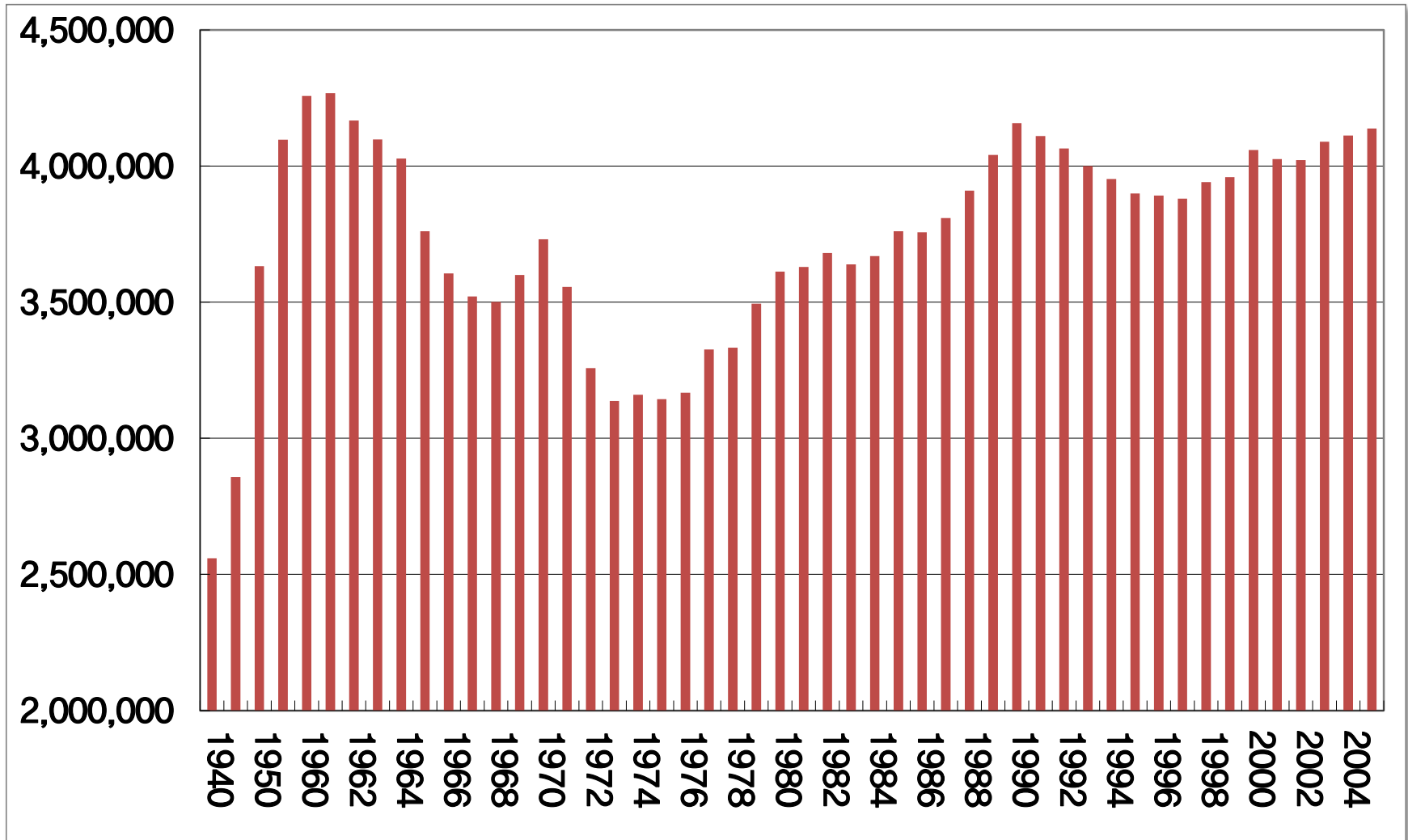
자료: 후생노동성, 인구동태통계



# 1. 위대한 세대의 퇴장 : 미국의 사례

〈 미국의 연도별 출생아 수 〉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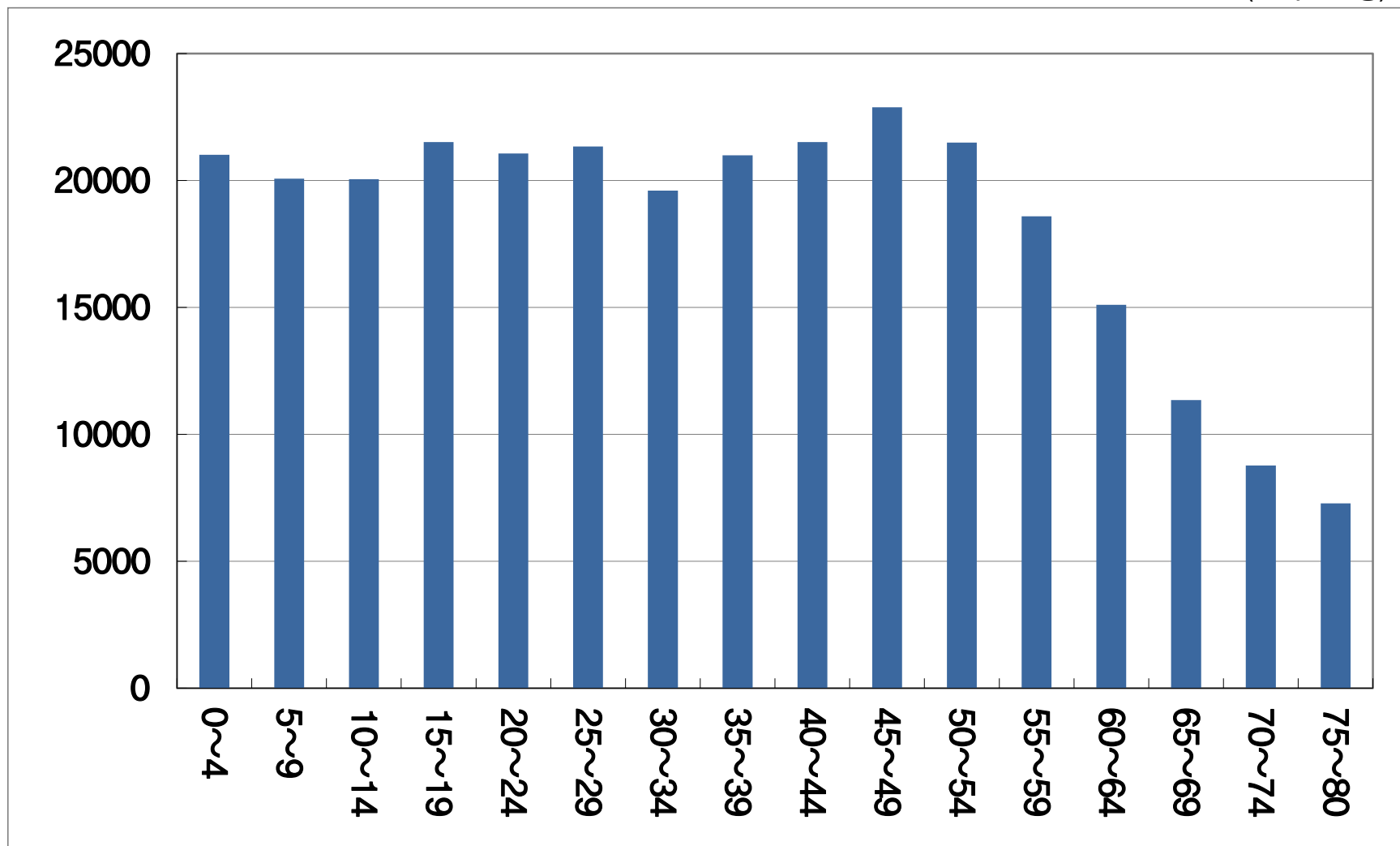


자료: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 1. 위대한 세대의 퇴장 : 미국의 사례

〈 2008 미국의 연령별 인구 분포 〉

(단위: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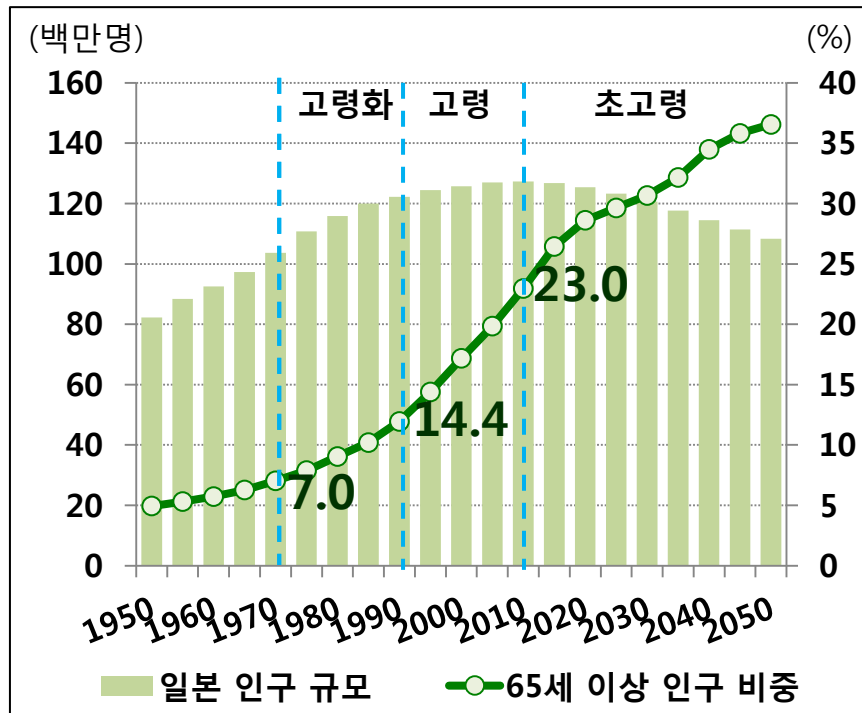


자료: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 2. 닳아가는 한·일 인구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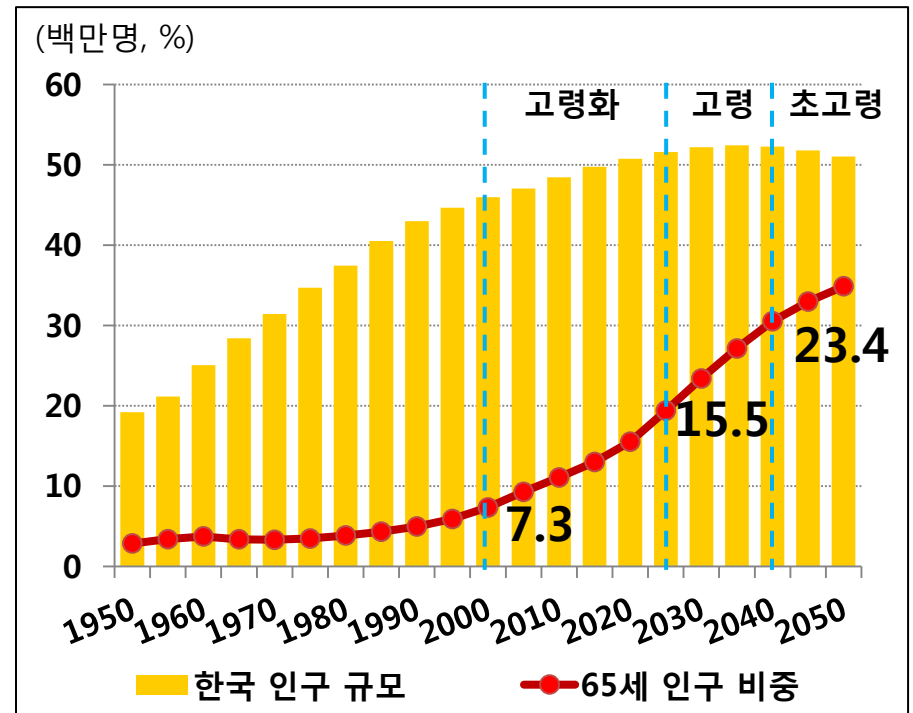
- 일본은 1995년, 한국은 2015년 이후 ‘인구보너스’ 종료
  - 일본은 1994년 고령사회 진입 후 인구 감소
  - 한국은 2017년 고령사회 진입과 동시에 인구 감소
- 한일 간 인구구조는 한국의 빠른 고령화 진전 등으로 약20년 시차로 유사해지고 있음

〈 일본의 인구 고령화 추이 〉



자료 : UN.

〈 한국의 인구 고령화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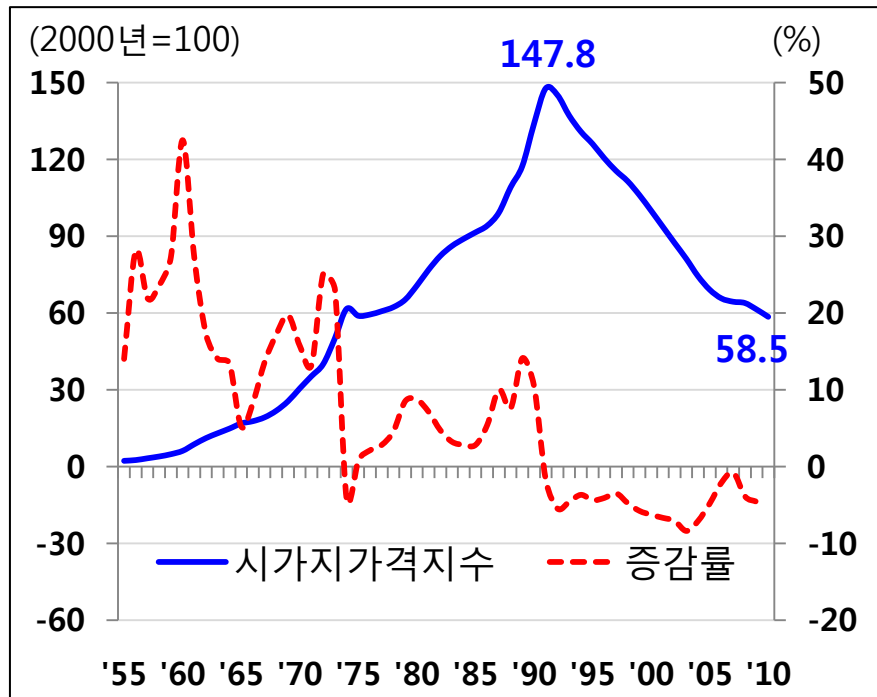


자료 : UN.

### 3.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 부동산 버블 붕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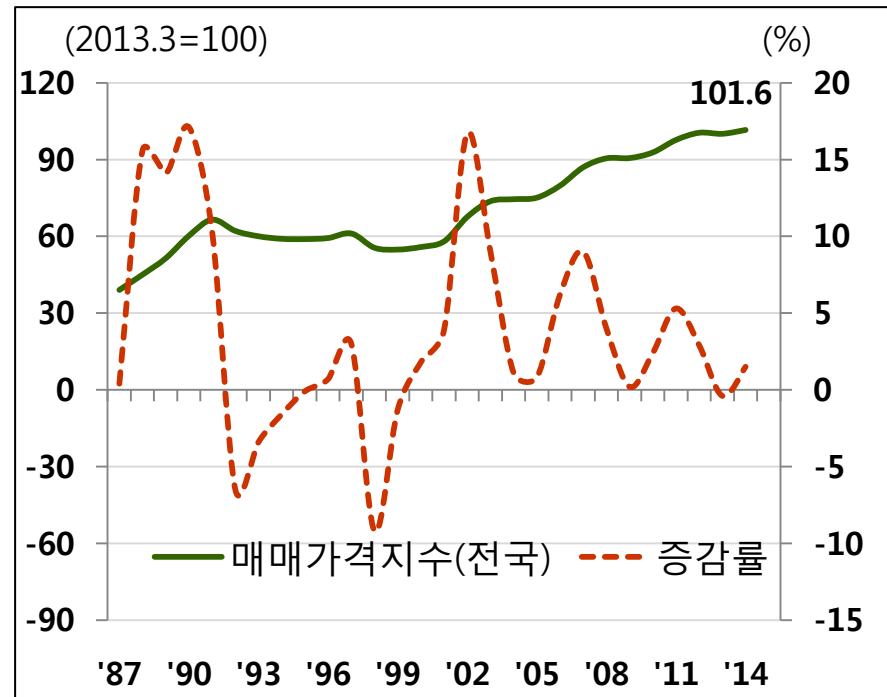
- 일본의 부동산 불패 신화 붕괴도 고령사회(1990년대 중반) 진입을 앞두고 발생
  - 1950~60년대 도시화, 1970년대 열도개조론, 1980년대 엔고로 부동산 불패신화 형성
- 한국도 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부동산 경기 둔화가 진행

〈 일본 부동산 가격 추이 〉



자료 : 일본 내각부.

〈 한국 부동산 가격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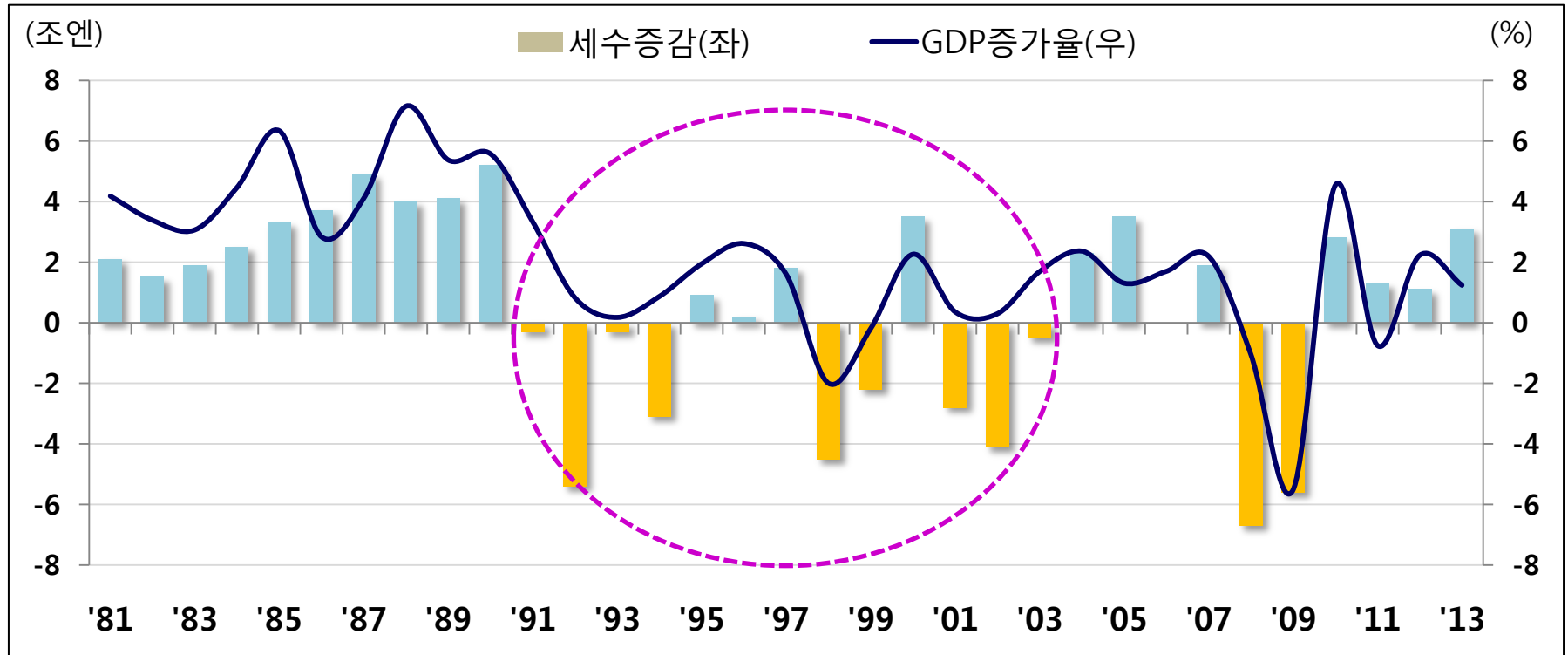


자료 : 국민은행.

### 3.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 버블 붕괴로 세수 감소

- 일본은 1991년 버블 붕괴와 더불어 장기 경기 침체에 진입한 이후 세수 감소세가 지속
  - 1990년 약 60조 엔에 달했던 조세 수입이 2013년 약 47조 엔으로 축소

〈 일본의 세수 증감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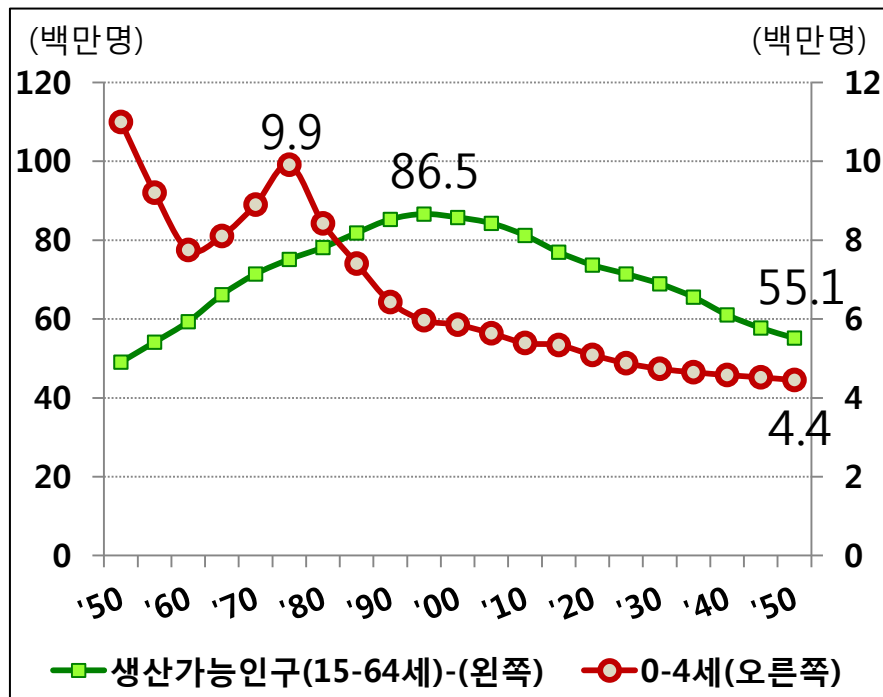


자료 : 일본은행.

### 3.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 ‘인구 오너스’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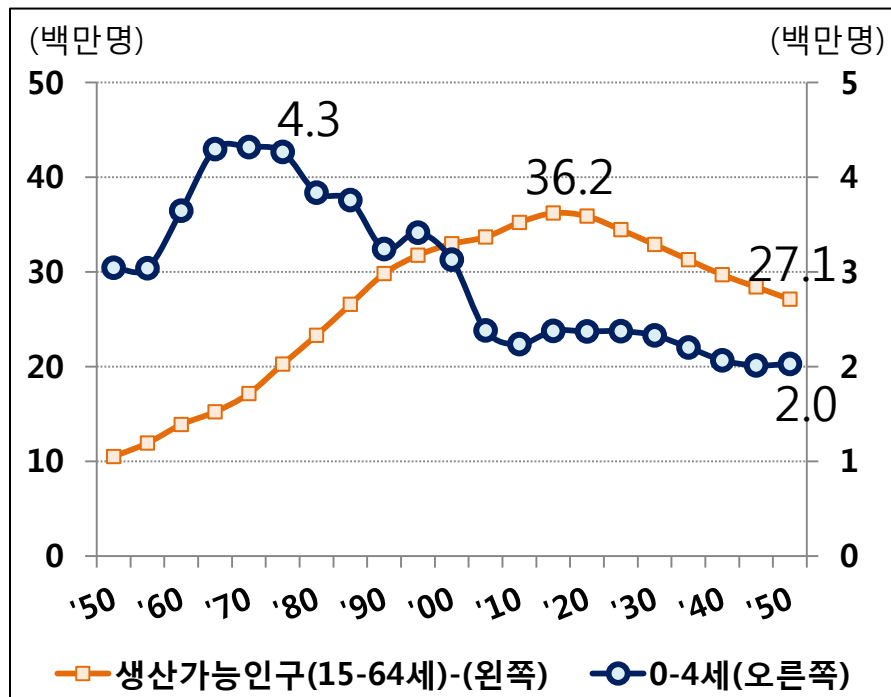
- 버블 붕괴 후 일본은 저출산·고령화로 ‘인구오너스’ 진입, 디플레 심화
  - 1990년대 중반부터 생산가능인구 감소, 공급측 쇼크 발생  
(노동 투입 및 내수(소비) 기반 약화)
- 한국은 ‘인구오너스’ 시작 직전으로 공급 쇼크 우려

〈 일본 생산가능인수 및 0~4세아 추이 〉



자료 : UN.

〈 한국 생산가능인구 및 0~4세아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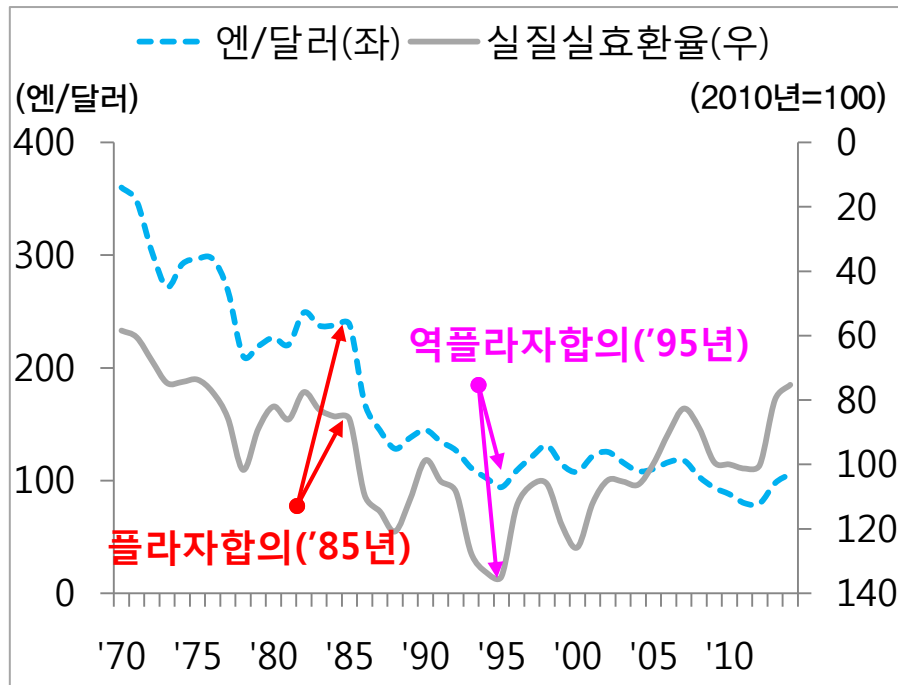


자료 : UN.

# 4. 엔화강세와 구조적 경상흑자 : 엔화 강세 속 해외직접투자 급증

- 플라자합의(1985년) 후 엔고로 인한 해외직접투자 급증으로 산업공동화 우려 고조
  - 엔/달러 환율은 1985년 238.5엔/달러에서 1995년 94.1엔/달러까지 하락
  - 플라자합의 이후 일본의 해외 직접투자 급증, 산업공동화 우려 고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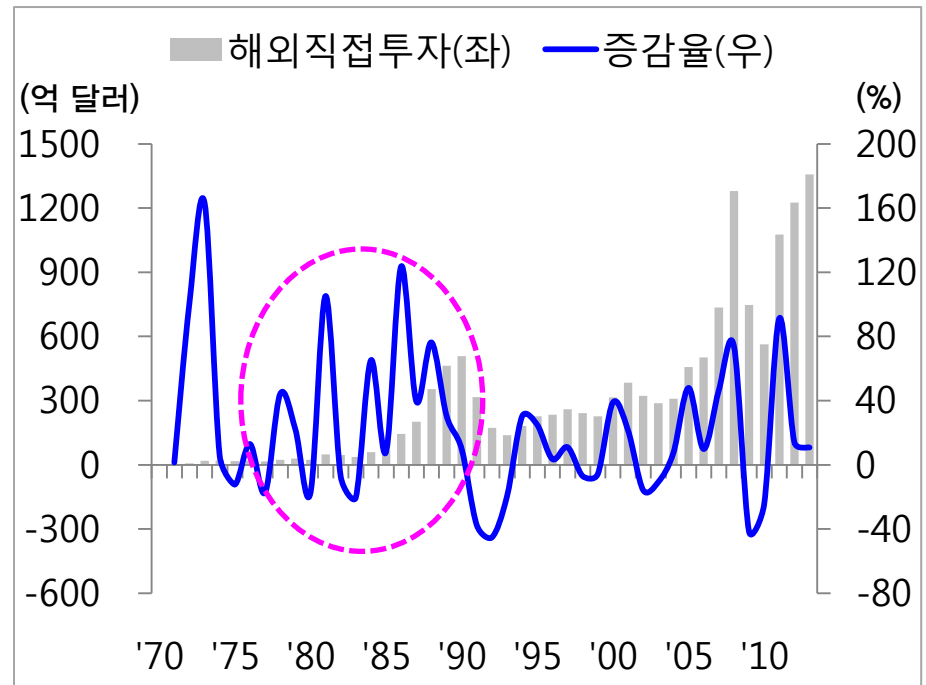
〈 일본의 설비투자 추이 〉



자료 : 일본 내각부, 일본은행.

주 : 플라자합의는 엔고를, 역플라자합의는 엔저를 유도하기 위한 G7 합의.

〈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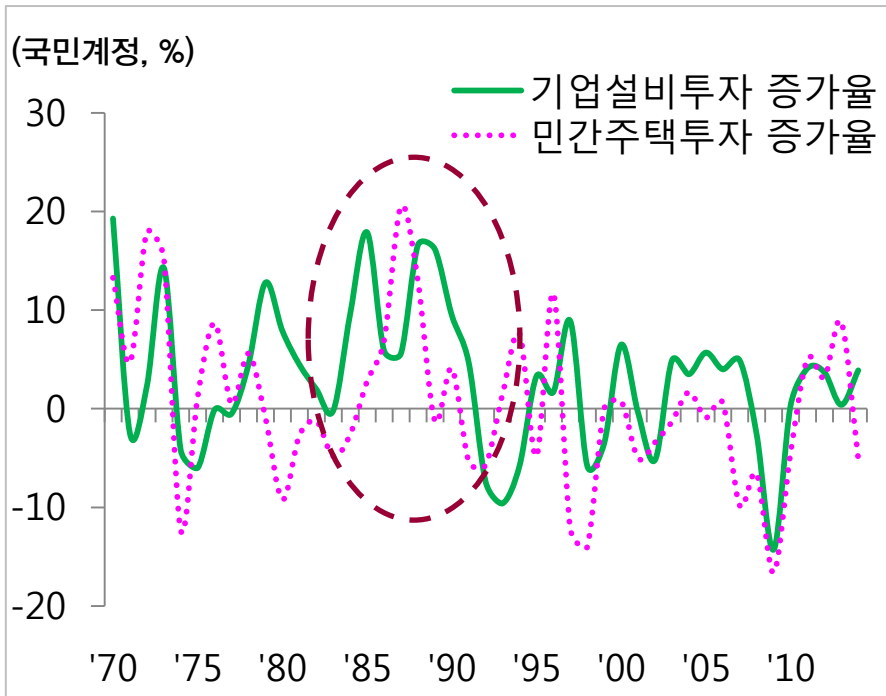


자료 : UN Comtrade.

## 4. 엔화강세와 구조적 경상흑자 : 내수 기반 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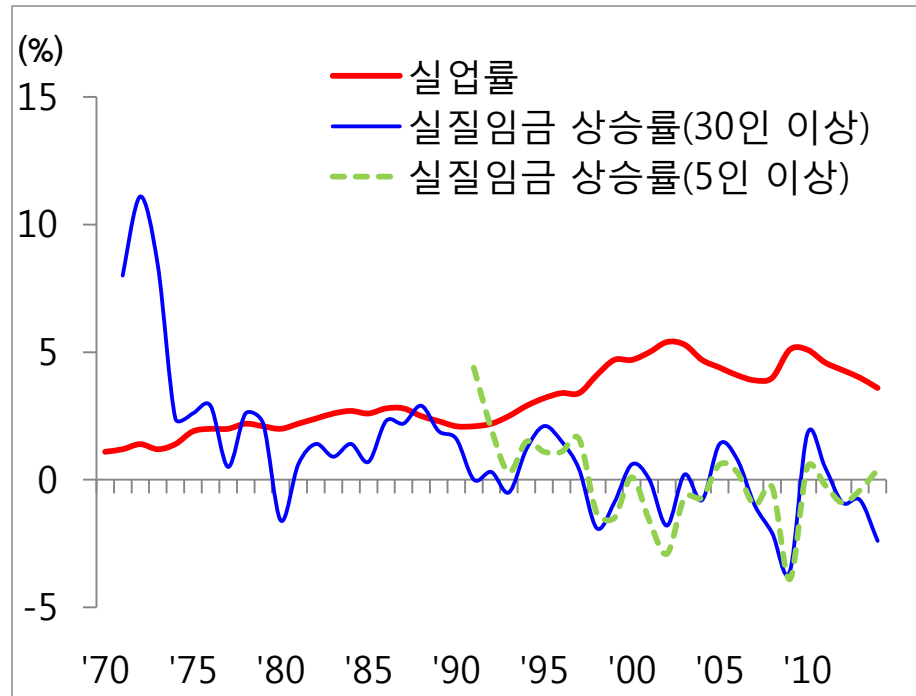
- 민간 투자는 플라자합의 후 급락, 단기 반등 후 추세적으로 하락. 고용 및 임금 약화
  - 설비 및 건설 투자 증가율은 1985년 이후 급등락 한 후 버블붕괴를 계기로 추세적 하락
- # 정책실기도 한 몫 : 정책 금리 88년 12월 3.38%에서 91년 3월 8.25%로 약 2년 간 4.87%p 인상
- 실업률은 버블붕괴 이후 악화되었으나, 실질 임금은 1980년대 후반부터 감소

### 〈 일본의 민간 설비 및 주택 투자 추이 〉



자료 : 일본 내각부, 일본은행.

### 〈 일본의 실업률 및 임금 증가율 〉



자료 : 일본 후생노동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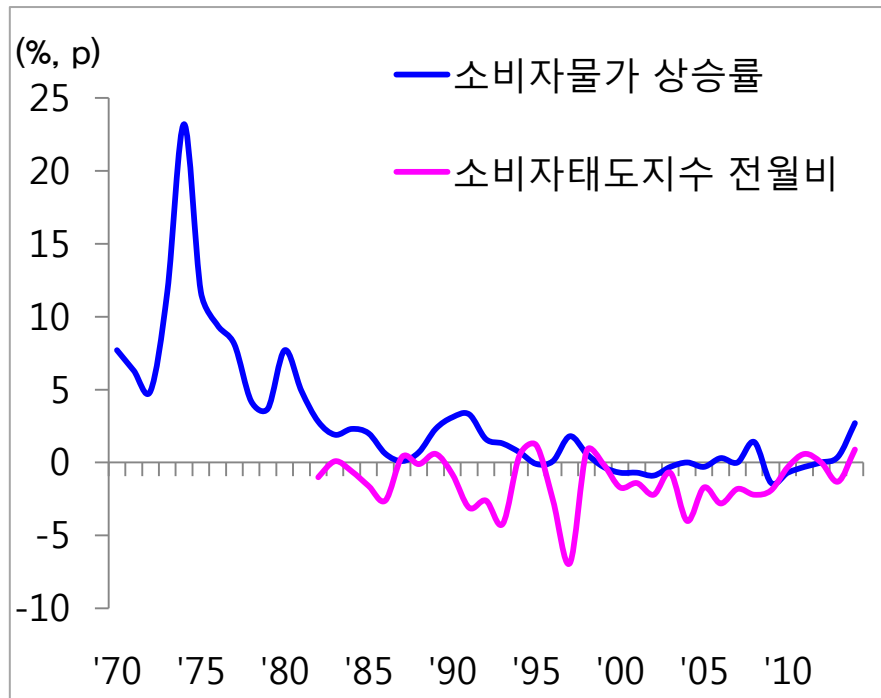
주 : 현금급여 총액 기준.



## 4. 엔화강세와 구조적 경상흑자 : 경제심리 및 재정여력 약화

- 1980년대 들어 소비심리와 물가 둔화 지속. 경상수지는 흑자이나 재정 여건은 악화
  - 소비자물가는 1980년대 초반부터 하락(금리 인상기 제외), 소비심리 악화 일로
  - 경상수지는 1980년대부터 지속 흑자인 반면 재정은 1980년대 후반부터 지속 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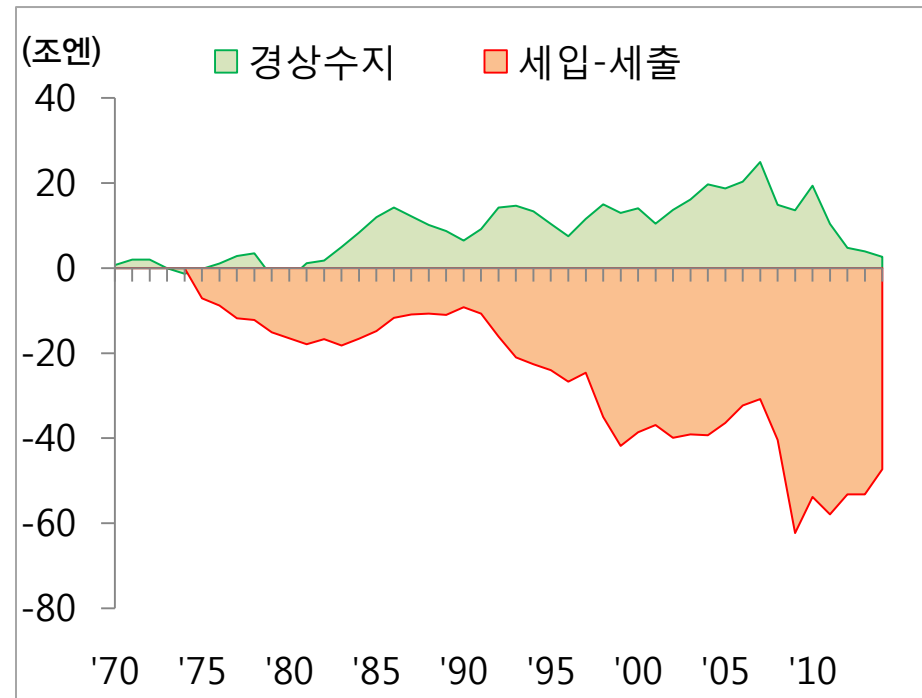
### 〈 일본의 소비자심리 및 소비자물가 추이 〉



자료 : 일본 내각부.

주 : 소비자태도지수는 12월 기준 전월비임.

### 〈 일본의 경상수지 및 세수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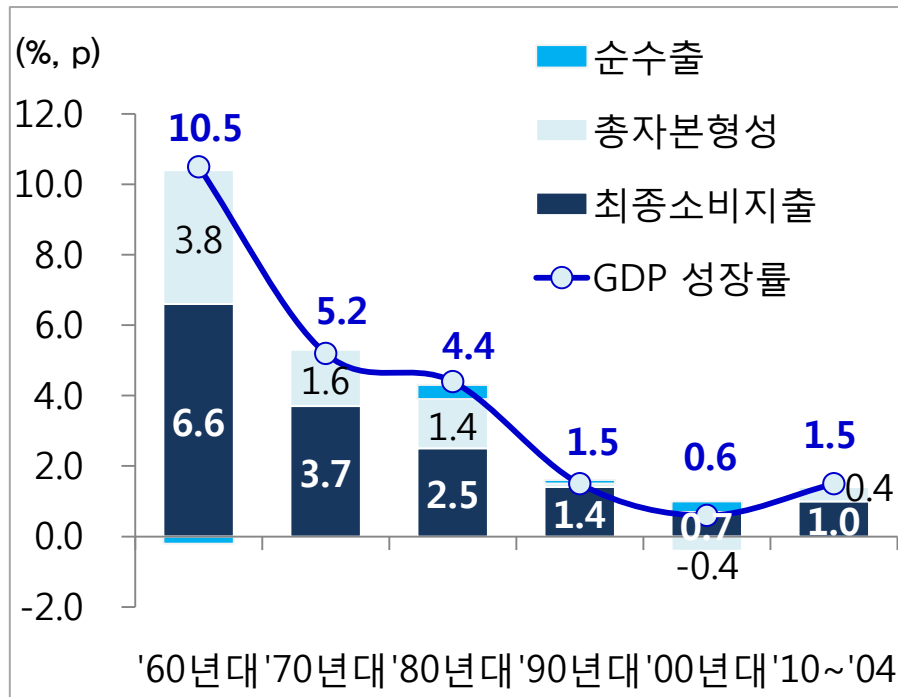
자료 : 일본 재무성.

주 : 일반회계 기준임.

# 4. 엔화강세와 구조적 경상흑자 : 일본을 닮고 있는 한국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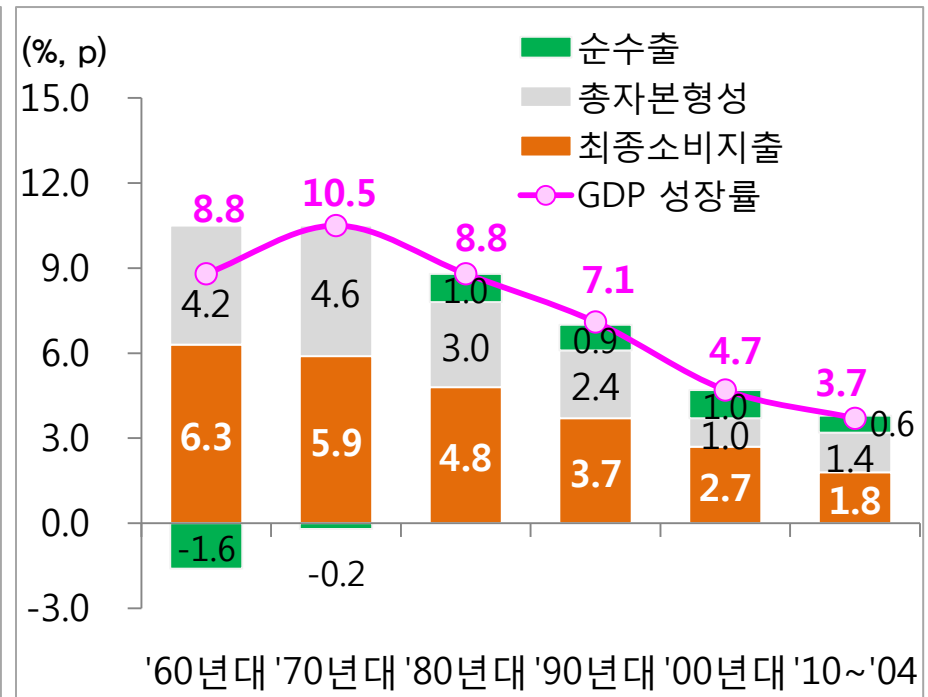
- 일본처럼 한국경제도 원화강세 및 내수기반 약화로 구조적 경상흑자 확대 우려
- 일본경제는 내수부문의 구조적 부진으로 장기경기 불황을 경험
- 한국경제의 성장패턴도 내수부문의 기여도 약화로 일본경제의 경로를 답습할 가능성 큼

〈 일본의 부문별 성장기여도 추이 〉



자료 : 일본 내각부, 현대경제연구원.  
주 : 각 구간별 평균임.

〈 한국의 부문별 성장기여도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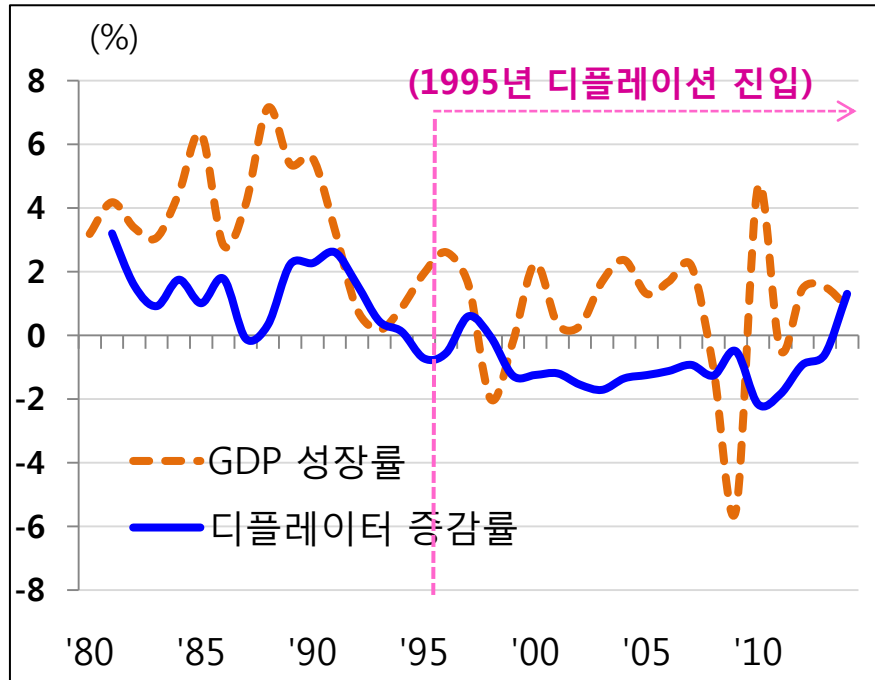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현대경제연구원.  
주 : 각 구간별 평균임.

## 5. 한·일 경제성장률 및 디플레이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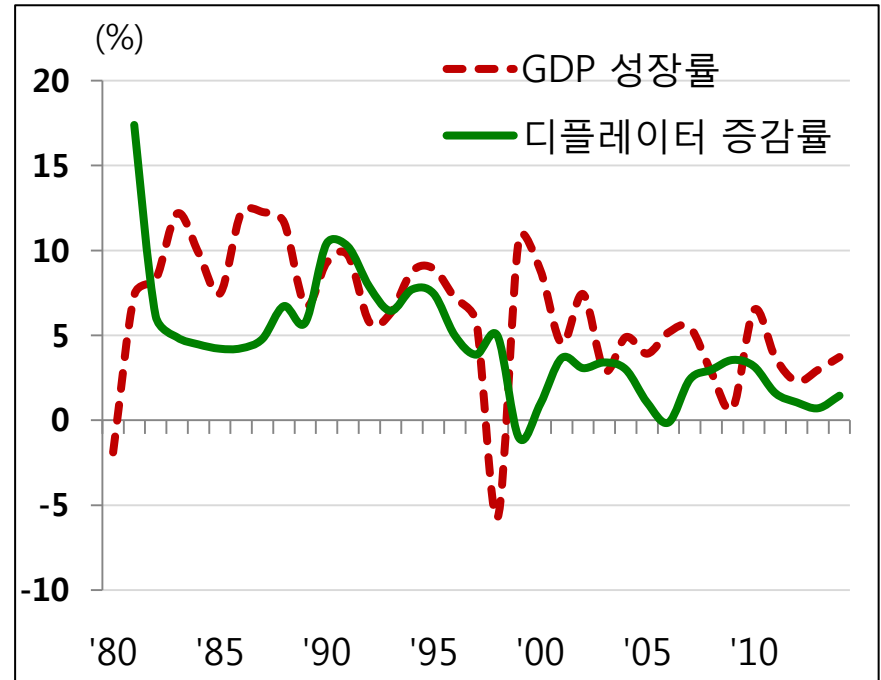
- 일본은 1991년 버블 붕괴 이후 24년간 0.9% 성장. 1995년부터 디플레이션 진입
  - 2014년 아베노믹스, 소비세 인상 등으로 디플레이터 증감률 플러스 전환.
  - 단, 성장률은 하락
- 한국도 저성장 국면에 진입함과 동시에 디플레이터 증감률이 1%대로 하락

〈 일본 GDP 성장률 및 디플레이터 추이 〉



자료 : IMF.

〈 한국 GDP 성장률 및 디플레이터 추이 〉



자료 : IMF.

## **IV. Lessons**

# 1. 인구구조 개혁 : 단기적 관점

## - 관광 산업을 통한 국내 내수 활성화

-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로부터 관광객 유치



**인도**

15억 950만명(2013)  
1,509\$



**중국**

13억 6,076만명(2013)  
6,959\$



**한국**

5,022만명(2013)  
25,975\$



**러시아**

1억 4,370만명(2013)  
14,591\$



**일본**

1억 2,734만명(2013)  
38,468\$



**인도네시아**

2억 4,759만명(2013)  
3,510\$



**대만**

2,337만명(2013)  
20,925\$



**베트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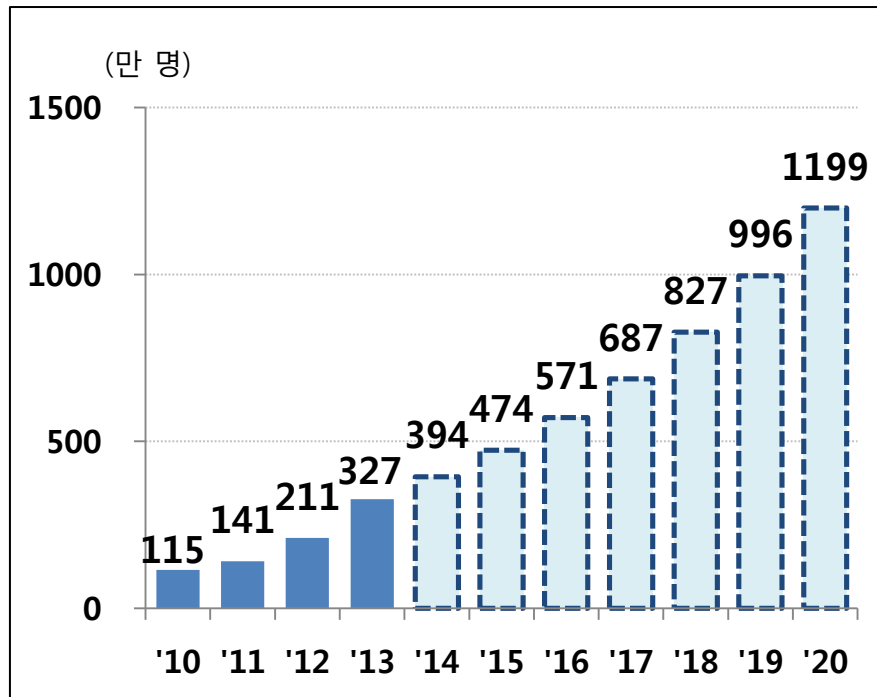
8,969만명(2013)  
1,902\$

# 1. 인구구조 개혁 : 단기적 관점

## - 관광 산업을 통한 국내 내수 활성화

- 중국관광객 증가 전망 : 327만 명(2013년) → 1,199만 명(2020년)
- 중국관광객으로 인한 생산 유발액 8배 증가, 부가가치 유발액 9배 증가, 취업유발분 8배 증가

### 〈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 전망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

### 〈 중국인 관광객의 경제적 효과 추정 〉

	2012년	2020년
방한 중국인 관광객수	211만 명	1,199만 명
생산 유발액	8.1조 원	68.4조 원
부가가치 유발액	3.8조 원 (0.3%)	32.4조 원 (1.6%)
취업 유발분	10.6만 명	89.8만 명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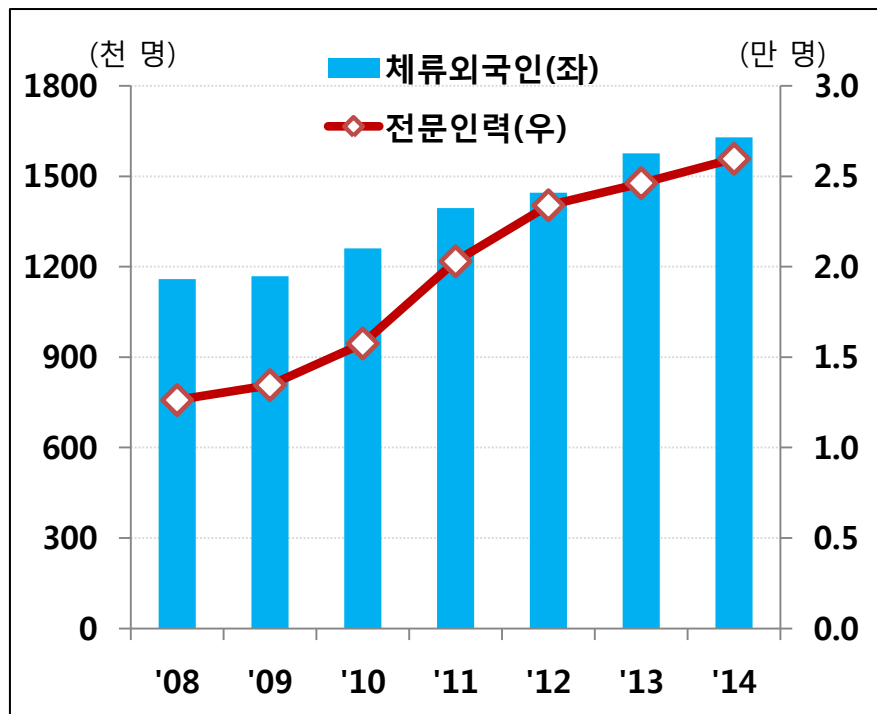
주 : ( )안은 GDP 대비 비율.

# 1. 인구구조 개혁 : 중기적 관점

## - 외국인 이민 유치로 통한 국내 내수 활성화

- 외국인 이민을 적극 유치하여 저출산·고령화에 대응
- 특히 지적 자본 확충을 위해 외국인 전문인력 유치의 중요성이 강조됨
- 언어 소통, 자녀 교육 인프라 부족, 경직된 위계질서 등 체류 및 근로상 걸림돌 산적

### 〈 국내 체류 외국인 규모 추이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주 : 2014년은 9월말 기준.

### 〈 외국인 전문인력의 체류상 어려움 〉

구분	내용
일상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언어 소통의 어려움</li> <li>- 자녀 교육 인프라 부족</li> <li>- 외국인에 대한 차별</li> <li>- 거주지 마련</li> </ul>
직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도한 근무시간</li> <li>- 경직된 위계질서</li> <li>- 언어 장벽에 따른 소외감</li> <li>- 사생활에 대한 존중 부족</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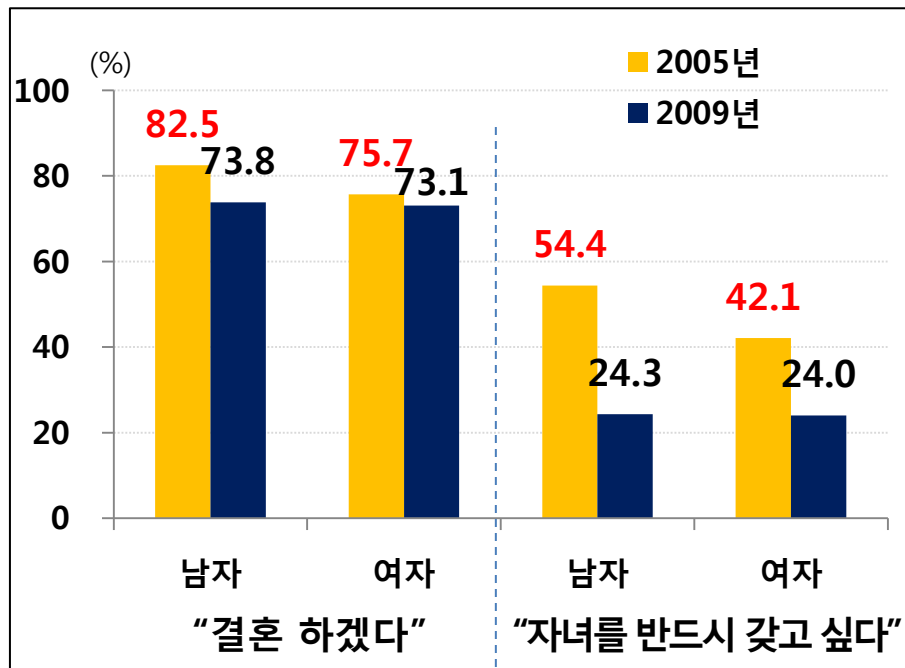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이 KISTEP 및 언론보도를 종합하여 재정리.

# 1. 인구구조 개혁 : 장기적 관점

## - 저출산 대응책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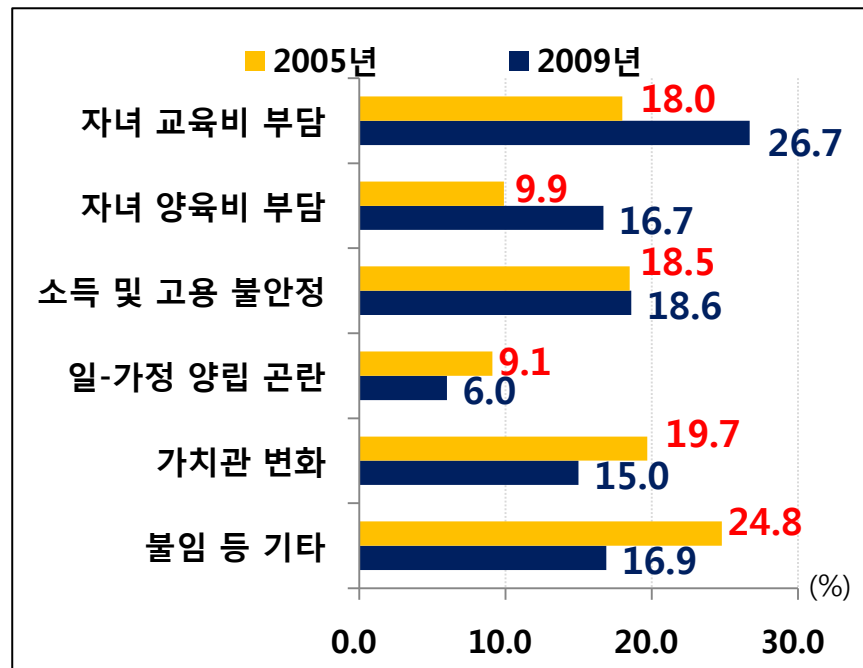
- 고용과 소득 불안정 등으로 결혼을 기피
- 결혼을 해도 자녀 교육 및 양육비 부담으로 출산을 기피
- 심각한 청년층의 주거비 문제 : 소득 중 절반 이상을 주거비로 부담하는 서울의 1인 청년 비중은 16.1%로 서울 지역 전체 가구 평균치(8.2%)의 두배(2009년 기준)

### 〈20~30대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의지(설문조사)〉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 〈1자녀 이하 가정의 출산 중단 이유(설문조사)〉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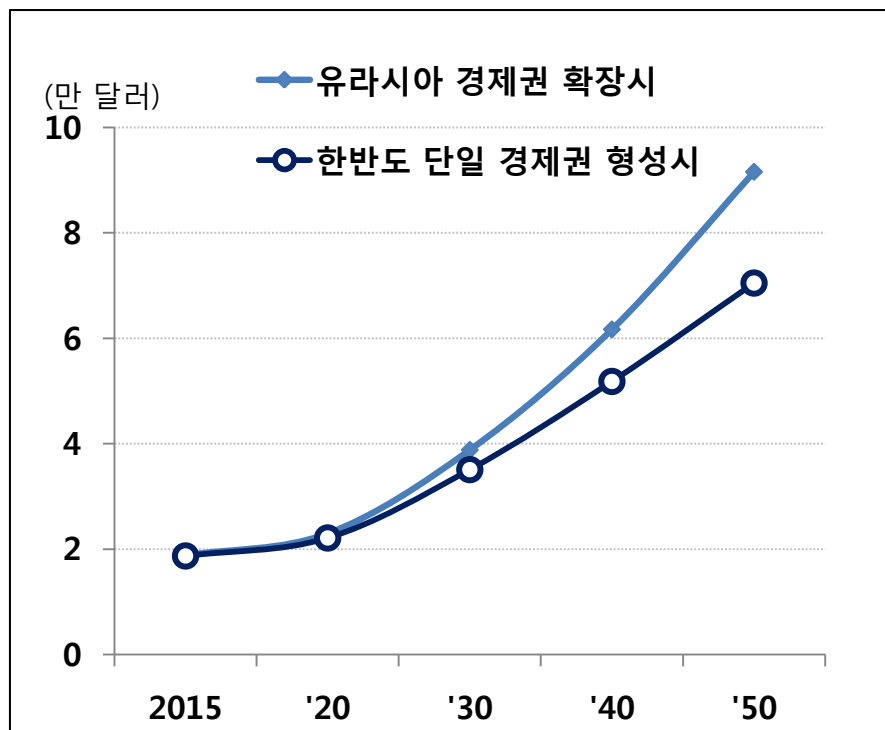


# 1. 인구구조 개혁 : 이벤트적 관점

## - 남북통일, 한국의 경제적 잠재력 상승의 기회 요인

- 통일이 되면 2050년의 일인당 GDP 7만 달러 ~ 9.2만 달러까지 증가
- 한국의 경제력 순위도 12위 ~ 7위까지 상승

### 〈 통일한국의 일인당 실질GDP 전망〉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 〈 2050년 세계 경제력 순위 비교 〉

(단위 : 십억 달러)

	2011		2050			
	국가	GDP	한반도 단일경제권		유라시아 확장	
			국가	GDP	국가	GDP
1위	미국	15,094	중국	48,477	중국	48,477
2위	중국	7,298	미국	37,998	미국	37,998
3위	일본	5,867	인도	26,895	인도	26,895
4위	독일	3,571	브라질	8,950	브라질	8,950
5위	프랑스	2,773	일본	8,065	일본	8,065
7위	영국	2,432	멕시코	6,706	통일한국	6,877
12위	스페인	1,491	통일한국	5,293	영국	5,598
15위	남한	1,116	스페인	3,612	스페인	3,612

자료 : World Bank, PWC, 현대경제연구원.

## 2. 서비스업 육성

### - 관광, 보건의료 등 서비스업 육성

- 생계형 자영업의 한계 : (예) 80가구 당 식당 1개
- 고소득 중국인 관광객 유치
  - : 중국 인구 13.7억 명, 1인당 국민소득 7,500 달러
  - : 8만 달러 이상 5천만 명, 1.6만 달러 이상 2억 5천만 명

### 3. 고부가가치 농업 육성

#### – 고부가가치 농업 육성

- 고품질 농축수산물로 중국 진출

: 1인당 국민소득 1.6만 달러 이상 3억 명 공략

## 4. 경제 제도 인프라 개선

### - 노동 부문 경쟁력 취약 사례

- 차량 1대 생산에 투입되는 시간 : 현대자동차의 국내 울산 공장이 해외보다 2배 많음
- 적정 투입 인력보다 실제 투입 인력도 국내 공장에서 더 많아 효율성이 떨어짐

### 〈 현대차 주요 공장 생산성 비교 〉

	울산공장	미국공장	중국공장	체코공장	러시아공장
위치	울산시	앨라배마주	베이징	노소비체	상트페테르부르크
설립연도	1967년	2005년	2002년	2008년	2011년
공장면적	500만m <sup>2</sup>	694만m <sup>2</sup>	542만m <sup>2</sup>	221만m <sup>2</sup>	198만m <sup>2</sup>
생산 차종	싼타페, 아반떼, 제네시스, 투산 등	쏘나타, 엘란트라	쏘나타, 랑둥, 싼타페 등	I30, ix20 등	쏘라시스, 리오
생산 대수	155만대	36만대	86만대	30만대	22만대
차량 한대 생산시간	<b>30.3시간</b>	<b>14.4시간</b>	<b>17.8시간</b>	<b>15.8시간</b>	<b>16.9시간</b>
적정 인력 대비 실제 투입 인력	<b>1.78배</b>	<b>1.08배</b>	<b>1.11배</b>	<b>1.09배</b>	<b>1.09배</b>

자료 : 현대자동차.